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을 잃지 마십시오!

이민 사회에서 목회하기란 한국 교회보다 몇 곱절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이민 교회로 100명이 모이면, 한국에서는 300명이 모이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교회에 대한 소문만 좋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이민 교회'라고도 한다. 그래서 소문만 좋게 나면, 이민 교회는 저절로 성장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말 소문만 좋게 나면 교회가 저절로 성장할까?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소문이 좋게 나서 사람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호에 소개할 뉴질랜드 한우리교회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우리교회를 개척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다짐한 남우택 목사.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남 목사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뉴질랜드 북섬 제 1의 경제 도시 오클랜드 시에 있는 한우리교회는 오늘날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한인 이민 교회로 인정받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한우리교회가 뉴질랜드 한인 사회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다는 사실이다. 2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한인 이민 역사를 갖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한우리교회가 이처럼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척박한 이민 사회에서도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을 잃지 않음으로써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간 한우리교회를 소개한다.

남우택 목사

- 고신신학대학원(M. Div.)
- 대학생 선교사역(S.F.C.) 부산지역 전임간사 역임
- The Bible College of New Zealand 수학
- 現 한우리교회 담임목사

영적 공급이 없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

고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뒤, 학생선교단체인 SFC(Student For Christ)에서 3년간 전임 간사로 사역하던 남우택 목사는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로 유학길에 올랐다. 뉴질랜드에 도착한 남 목사는 원래 현지인 교회에 출석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오클랜드 한인 교회를 방문했는데, 알고 보니 그 교회의 담임목사가 남 목사와 아는 사이였다. 남 목사가 SFC에서 간사로 사역했던 것을 알았던 그 담임목사는 남 목사에게 한인 교회의 청년부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남 목사가 청년부 사역을 맡았던 오클랜드 한인 교회는 뉴질랜드 정부가 아시아 이민자들을 정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1990년 이전부터 세워진 한인 교회였다. 때문에 오클랜드 한인 교회는, 남우택 목사의 말에 의하면, 초기 뉴질랜드 한인 이민자들 중 90%가 이 교회를 거쳐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뉴질랜드 한인 이민자들 사이에 중요한 커뮤니티였다. 그들이 모두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낯선 타지에서 정착하려면, 그만큼 먼저 그곳에 정착한 이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한인들이 많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교회로 이민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이민 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목회 환경을 직접 체험한 남 목사는 남모르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고민한 것은 바로 '교회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라는 것이었다.

"이민 교회가 이민자들을 섬기는 일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이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이민 교회들 중 상당수가 마치 이민자들의 정착을 도와주는 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진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정착을 도와주는 일에는 힘을 쏟으면서도 정작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 주거나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민 교회의 독특한 목회 환경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민 교회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목적과 사명이 있고, 그것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남 목사는 이민 교회에서 사교 중심적인 모임은 활발한 데 반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모임은 매우 저조한 현실을 그 예로 들었다. 그리고 "많은 이민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현실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데, 그건 환경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목회자의 신학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한우리교회 안에도 다른 이민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민자들의 정착을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따라서 혹시 한우리교회를 아는 사람들은 남 목사가 앞에서 한 말이 다른 교회의 사역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남 목사는 자신의 말이 결코 다른 교회의 사역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남 목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냐는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즉,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는 '교회론'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교회론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잃은 채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고, 그것은 결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게 남 목사의 주장이다.

정말 뜻하지 않게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여러 모로 두려웠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만은 확실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민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이민 교회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분명하게 세웠지요.
그리고 5기로 CAL세미나를 참석하며,
제자훈련 목회의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또 다른 이민 교회를 세우고 싶지는 않다!

고민 끝에 한인 교회 청년부 사역을 사임한 남 목사는 바이블 칼리지에서 같이 공부하던 한국인 유학생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오후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당시 바이블 칼리지에는 남 목사를 포함한 목회자 3명과 자매 2명 등 총 5명의 한국인이 있었다. 그래서 세 명의 목회자들이 주일 메시지를 돌아가면서 전했고, 예배가 끝나면, 자녀들을 모아서 주일학교를 운영했다.

남 목사는 예배 모임을 시작한다는 광고를 한인회 소식지에 냈다. 자신의 아내처럼,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자 신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배 모임을 찾아왔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30여 명이나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배 모임을 기초로 아예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겠느냐?' 고 남 목사에게 제안했다. 유학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개척은 생각도 하지 않았던 남 목사는 "이민 교회의 현실에 답답함을 느껴서 예배 모임을 시작한 상황에 또 다른 하나의 이민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그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이미 예배 모임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남 목사에게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교회를 개척하자고 제안했다.

남 목사는 처음 예배 모임을 시작한 목회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런데 그들도 남 목사에게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라고 충고했다. 남 목사는 이들에게 '그렇다면 공동 목회를 하자' 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들은 남 목사에게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는 바로 당신' 이라며 남 목사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리고 자신들은 사역지를 찾아 떠나겠다고 했다. 그렇게 유학을 목적으로 뉴질랜드로 온 남우택 목사는 뜻하지 않게 한우리교회를 개척하게 됐다. 당시의 심정을 남 목사는 이렇게 소개했다.

"정말 뜻하지 않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 모로 두려웠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건 이왕에 교회를 시작할 거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민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이민 교회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분명하게 세웠지요."

1991년 12월 30일, 한우리교회 개척예배의 설교 본문으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선택한 남우택 목사는 성도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민 교회는 어쩌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들어오는 독특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 주길 바라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 교회는 그야말로 황금어장입니다. 사람들 입맛만 잘 맞춰 주면, 이민자들이 저절로 교회로 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9번째 이민 교회로 출발하는 우리 한우리교회의 사명은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세우는 것이며, 이 땅에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보여 줌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한우리교회가 이 사명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자훈련에도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SFC 간사로 사역했던 경험과 신대원 시절 개강수련회 강사로 온 옥한흠 목사의 강의를 통해 제자훈련을 이미 알고 있었던 남 목사는 제자훈련 목회를 생각하며 성경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자신이 직접 제작한 5주 과정의 〈구원의 언약〉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시작한 성경공부를 통해 남 목사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다. 남 목사는 그 시간이 너무 재미있었고, 또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대가 컸다. 그런데 남 목사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은 교재가 조금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인가 5주 동안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모습에서 어떤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남 목사는 조금 실망스러웠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 영적으로 수준이 낮아서 그럴 것' 이라며 자신을 위로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 교재가 너무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결국 남 목사는 교재를 바꾸기로 결정하고, 옥한흠 목사가 쓴 제자훈련 교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옥 목사가 쓴 교재를 사용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옥 목사의 제자훈련 교재를 남 목사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이야 인도자 지침서가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보조 교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제자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자훈련지도자 세미나(이하 CAL세미나)에 참석했죠."

그렇게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국제 5기 CAL세미나에 참석한 남우택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제자훈련이 무엇인지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한우리교회와 같은 이민 교회인 남가주 사랑의교회의 제자훈련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민 교회가 제자훈련을 접목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그는 제자훈련이 단순히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그때까지 '훈련' 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됐다고 한다.

"한 마디로 제가 그때까지 한 제자훈련은 주먹구구였던 겁니다. CAL세미나를 통해 그냥 성경공부만 한다고 해서 제자훈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리더십과 교회론, 그리고 제자도 등 목회철학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훈련답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공부 모임 이외에도 그 뒤를 받쳐주는 구체적인 전략과 그에 따른 꼼꼼한 행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자훈련 목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훈련을 실시하느냐와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매우 크다. 제자훈련 목회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교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훈련생들의 모습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단순히 성경공부만을 실시하면, 변화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 성도들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훈련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남우택 목사의 경험은 바로 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남 목사는 CAL세미나를 참석하기 이전에도 제자훈련에 대해 알고 있었고,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성경공부도 실시했다. 교재가 어렵다는 사람들의 반응에 옥한흠 목사가 쓴 교재로 바꾸기도 했다. 그럼에도 제자훈련 목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 한우리교회는 제자훈련의 효과를 맛보지 못했다. 하지만 CAL세미나를 통해 제자훈련 목회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정립한 뒤부터 한우리교회의 제자훈련은 달라졌다. 한우리교회 김기호 장로는 한우리교회의 제자훈련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이렇게 증언했다.

"그 이전에 실시한 제자훈련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변화되거나 열매가 나타났다고 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나중에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장로인 내가 보기에도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30년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보다 한우리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해서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훨씬 더 교회에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자훈련의 힘을 느꼈습니다."

목회자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사람에게 끌려 다니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교회가 약하면 약할수록 목회자는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끌려 다닐 수 있다.
남 목사도 마음 속으로 의지하고 믿었던 안수집사들을 떠나보내는 경험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달았다.

교회는 목회자의 모습을 닮는다

남 목사가 제자훈련 목회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제자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우리교회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남 목사는 그런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를 "그 이전부터 이미 교회에 대해 좋은 소문이 퍼져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우리교회에 등록하는 새신자들 중에는 이미 한국에서 한우리교회를 소개받아서 온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우리교회는 정확하게 2000년도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남 목사가 CAL세미나를 다녀온 뒤에 새롭게 시작한 제자훈련의 수료생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맡기 시작한 때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한우리교회는 그렇게 한인 사회에서 이미지가 좋았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남우택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이야 한인 교회의 수도 많아졌고, 또 좋은 교회도 많아졌기 때문에 덜합니다만, 이민 초기만 하더라도 한인 교회의 수가 불과 10여 개 남짓이었거든요. 그 교회 중에서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 목사는 낯선 타국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다가 '제자훈련한다'는 한우리교회 이야기를 듣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앙 연수가 많거나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했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교회의 소문이 좋은 것일까? 아니면 교회가 좋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까? 오은영 집사의 말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었다.

"불신자인 남편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 온 뒤, 남편에게 졸라서 집과 가까운 현지인 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옷을 입고 나와 기도를 드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옷 입은 것은 완전히 어디 놀러 온 사람같이 하고 와서 이렇게 은혜로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남편이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서 함께 한우리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처음 한우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현지인 교회에서 받은 느낌을 한우리교회에서도 느낄 수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로움 속에서도 은혜가 넘치는 예배, 그리고 성도들과 격이 없으면서도 모든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 지금 생각해 보니 교회의 모습이 곧 목사님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열려 있고, 자유로우면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는 모습이 말이죠. 그제야 왜 한인 사회에서 한우리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남우택 목사의 고신대학교 1년 후배이자 뉴질랜드에서 오랫동안 남 목사와 함께 동역하다가 지금은 한우리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임기홍 목사는 남 목사에 대해 이렇게 증언한다.

"남 목사님은 무슨 일이든 부교역자에게 강요하거나 권위적으로 일을 시키시는 적이 없습니다. 사역을 맡기면 그 교역자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시죠. 목사님이 이런 리더십을 보여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교역자들 간의 팀워크도 매우 좋고요. 서로 쓸데없는 경쟁을 하지 않고, 마치 형제나 친구처럼 서로를 대하니까 사역을 하는 데도 힘이 나고 즐겁습니다."

제자훈련을 실시하기 원하는 목회자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자신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 하는 것이다. 제자훈련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리더십이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가 제자훈련을 해서 좋은 열매를 거뒀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가 건강한 목회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교회라면 좋은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에게 끌려 다니지 말라

그렇다면 남우택 목사는 한우리교회를 목회하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까? 이 질문에 남 목사는 조심스럽게 한 이야기를 꺼내 소개했다.

"단 한 명의 성도가 아쉬운 이민 교회의 상황에서 소위 사회적으로 엘리트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담임목사는 그들에게 참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목사가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다.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아지면서, 서울에서 소위 내로라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면서 한우리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등록을 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한국에서 큰 교회의 안수집사로 섬겼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남 목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한우리교회에 보내 주신 일꾼들이라고 생각하고 제직회 임원 등 직분을 맡겼다.

그런데 어느 날 남 목사는 안수집사들 사이에 묘한 갈등이 있는 것을 눈치 챘다. 즉, 한우리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사람과 한국에서 안수를 받고 온 집사들 사이에 패가 갈린 것이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한국에서 안수를 받고 온 집사들은 남 목사가 한우리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집사하고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한다며 불평을 하고 다녔다.

"사실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수를 준 분은 무슨 일이든 부탁하기만 하면, 철저히 순종을 하셨거든요. 제게 제자훈련도 받았고, 그래서인지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예' 라고 따라줬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안수를 받고 온 분들은 제 의견에 반대의견을 서슴없이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러니 저도 사람인지라 제게 순종적인 분들에게 더 많이 부탁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남 목사는 한우리교회에 유학생들이 많은데, 힘들게 고생하는 유학생들에게 교회가 식사를 제공하고 싶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교회가 굳이 유학생들 밥까지 먹여 줘야 하냐?' 는 식으로 말을 했다. 알고 보니 한국에서 안수를 받고 온 안수집사들이 그런 생각을 퍼트리고 있었다. 남 목사는 당황스러웠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자칫 잘못하면 좋은 교회의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어느 제직회 때였어요. 그분들이 건의사항이라며 제 설교 시간이 너무 길다고 좀 줄여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건의야 충분히 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건의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건 자신들 속에 저에 대해 쌓여 있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기 전에 '한우리교회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제게 리더십을 허락하신 곳입니다. 제 리더십이 맞지 않으신다면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 그분들을 찾아 가십시오' 라고 말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배가 끝난 뒤, 문제의 안수집사들이 남 목사를 찾아왔다. 그들은 남 목사에게 '교회를 떠나야 할 것 같다' 고 했다. 그때 남 목사는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것에 조금도 후회가 없다면 떠나시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3명의 안수집사가 교회를 떠났다. 남 목사는 그 사건을 계기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사실 그분들 중에는 제가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믿었던 분도 계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봐도 모두 엘리트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교회로서는 많은 손해였지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목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사람에게 끌려 다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심방을 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심방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제자 삼는 일에 전념합니다. 교회에서 제게 맡겨진 일은 성도들이 나가야 할 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일입니다. 그런 제가 사람에게 끌려 다니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사람에게 끌려 다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자
한우리교회는 리더수급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소그룹 시스템을 양육 중심의 다락방에서
교제 중심의 리더 권한이 강화된
목장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남우택 목사는 소그룹 사역의 본질과
제자훈련 철학의 본질을 절대 놓지 않았고,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

니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교회가 약하면 약할수록 목회자는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끌려다닐 수 있다.

변화는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한우리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리더 수급이 교회 성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곧 소그룹 모임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 많게는 20여 명까지 모이는 다락방이 생기는 상황에서 도저히 예전과 같이 다락방 모임을 이끌어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남 목사가 몸으로 뛰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한 남 목사의 건강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쓸개 부위를 수술해야 할 만큼 건강이 나빴지만, 남 목사는 병상에 누워서도 소그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고민했다. 그는 소그룹 사역과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그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공격적이며 전투적으로 소그룹을 책임지도록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남 목사는 퇴원을 하자마자 서울과 미국을 돌아다니며 소그룹 사역과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렇게 1년간 소그룹 사역을 놓고 연구한 끝에 그는 소그룹 시스템을 다락방에서 목장 사역으로 전환했다. 다락방과 목장의 가장 큰 차이는 소그룹 세팅이 교회 주도에서 목장 자체로 넘어간다는 것이었다. 즉, 기존의 다락방은 매년마다 교회에서 소그룹을 세팅해 주었지만, 목장 사역은 목장 내 구성원이 일정 수가 넘어가면 자연적으로 분할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모든 목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사명은 목장을 분할하기 위해 필요한 예비 리더를 키워내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그만큼 목장 사역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기대가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다락방이 좋은데 왜 목장으로 가느냐' 며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었다.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가 목자라고 불리는 것이 부담스럽다' 며 차라리 '앞선 양' 이라고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익숙하던 것을 확 바꿔 버리면 거부감을 갖게 되지요. 하지만 본질을 놓치지 않고 변화를 일으키면 사람들은 금세 따라옵니다. 우리 교회의 목자들도 처음엔 거부감을 나타냈지만, 이내 자신들의 새로운 사명을 인식하고 그 일에 헌신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처음 목장 시스템을 세팅할 때만 제가 관여하고, 그 뒤부터 자체적으로 분가하도록 놔뒀는데 지난 3년 만에 목장의 수가 60개로 늘었습니다."

목장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리더 수급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 한우리교회의 리더 양육 시스템은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3주로 비교적 짧다. 하지만 그것만이 끝이 아니다. 모든 리더는 매 주일 오후 2~4시까지 진행되는 목자 모임에 꼭 참석해야 한다. 이 모임은 목장 모임에서 나눌 내용을 남 목사와 먼저 다루는 시간이다.

교재는 주일날 설교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진 3~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전 다락방 모임보다는 성경공부의 부담감을 덜 갖고 목장 모임에 참석한다. 하지만 목자들은 다르다. 그들은 다락방 모임 때나 다를 바 없이 목장 모임을 준비한다. 질문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더 집중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남 목사는 목자 모임을 통해 목장 모임이 단순히 교제만을 위한 모임이 되지 않도록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시스템적인 면에서 보면 한우리교회는 양육 중심의 다락방에서 교제 중심의 목장 사역으로 변화됐지만, 소그룹 사역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소그룹 지도자의 책임과 권한이 좀더 많아졌다는 것뿐이다.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면 리더 수급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리더를 좀 더 빨리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찾는데, 이때 자칫 잘못하면 이제까지 교회가 나아가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제자훈련을 하던 교회가 소그룹 사역에 변화를 주기 위해 제자훈련 목회철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본질에서 벗어난 변화는 오히려 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오늘날 한우리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이민 교회로서 1,000여 명이 모이는 성장 때문이 아니다. 한우리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그만큼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한우리교회에는 '한우리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 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유난히 많다고 한다.

자신의 의견을 가감 없이 직선적으로 말하는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던 A 집사. 의사 출신인 그는 감정표현이 노골적이어서 사람들도 가까이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런 그에게 제자훈련을 받도록 권유한 것은 A 집사의 목자였던 김기호 장로였다. 처음 A 집사는 제자훈련을 받기 싫어 여러 차례 김 장로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계속된 김 장로의 권유에 못 이긴 A 집사는 결국 제자훈련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길 싫어하던 그는 무료 의료 봉사활동에 전념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했다.

서울에서 엄청난 부자로 살다가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 한우리교회에 출석한 B 집사. 그녀는 세상에서 자신의 주머니만큼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기고만장한 삶을 살았었다. 그런데 한우리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이 좋아질 무렵,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모두 없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결국 서울로 돌아가야만 했던 B 집사는 서울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종종 뉴질랜드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

"한우리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냥 쓰러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내 곁에는 주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담임목사의 훈장이라고 한다면, 남우택 목사의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이 달려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남 목사가 목회를 잘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매진해 온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우리교회가 뉴질랜드 이민 사회를 대표하는 건강한 이민 교회로 인정받게 된 데는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한 남우택 목사의 열정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의 열정은 아직까지 여전하다. 우리가 지금보다 앞으로의 한우리교회에 더 기대를 거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남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목회자가 걸어가야 할 바른 비전, 바른 길을 바른 열정을 가지고 걸어갈 때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크기나 사역의 범위는 모두 다 클 수 없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을 위해 힘을 쏟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매진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십니다."

〈박순종 목사〉